

흑삼, 3~4회만 썰서 말려도 된다

기존 7~9회 증숙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 호흡기 건강에도 좋아

보통 7~9회까지 찌고 말려 만들었던 흑삼을 3~4회만 썰서 말리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또한 새 제조법으로 만든 흑삼이 호흡기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동물 실험결과 나타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새 제조법으로 만든 흑삼이 호흡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흑삼은 인삼(수삼 백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하는 과정(증숙)을 반복해 만드는데, 1회 썰서 붉은색을 띠는 홍삼처럼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흑삼을 만들 때 업체마다 썰는 횟수가 제각각이고 대부분 7~9회까지 썰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가격 차이도 18만원~80만원(300g)에 이르는 등 큰 편이다. 이에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얼마 동안 썰 것인지, 건조는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등 표준화된 제조 공정 확립과 함께 새로운 효능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흑삼 제조 방법은 인삼을 세척하고 예비 건조한 뒤, 90~95도(C)에서 3~5시간 찌고 45~55도(C)에서 5~6시간 건조하는 증숙 과정을 총 3~4차례 반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흑삼을 만드는데 8일 정도가 걸려 기존 9회 증숙 시 18일 걸리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3~4회 찌고 말렸을 때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성분의 함량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효능이 우수한 흑삼을 만들 수 있다.

한편 농진청은 새 제조법으로 만든 흑삼의 기능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약전물 연구단과 지표 성분 분석실험, 동물실험 등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인삼속에 있는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39종 중 새 기술로 만든 흑삼에는 알지코사이드(Rg6), 알케이원(Rk1), 알지파이브(Rg5), 3개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흑삼에는 이들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 있다.



새 기술로 만든 흑삼은 호흡기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식 동물 모델에 흑삼 추출물을 저농도 (50mg/kg/일)와 고농도 (200mg/kg/일)로 5일간 투여한 결과, 염증인자인 인터루킨과 면역글로블린 이(E) 분비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면역글로블린 이(E)는 대조 집단을 100%로 봤을 때, 저농도는 39%, 고농도에서는 62% 줄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동물 모델 또한, 흑삼 추출물(100mg/kg/일)을 6일간 투여한 결과, 대조 집단을 100%로 봤을 때 염증인자(TNF-?) 분비가 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43% 억제됐다. 이는 함께 실험에 사용한 전식 치료제, 만성폐쇄성 폐 질환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다.

이번 연구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을 원료로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홍삼 위주의 인삼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흑삼까지 확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농진청은 흑삼 제조 방법 관련 특허출원(1건)과 특허등록(1건)을 마쳤으며,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흑삼의 안전성과 효능 관련 연구 결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교선 부장은 "홍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저평가된 흑삼이 면역력과 함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흑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흑삼 가공 법인을 운영하는 진안의 S도 씨는 "흑삼을 가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새 기술을 적용하니 시간도 단축되고 기능 성분도 늘어 만족스럽다"며 "이 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스모터스(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참여기업의 지역 조기인력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안착 조기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에디스모터스 현장방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스모터스(주)(대표 김영권)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참여기업의 지역 조기인력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11일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새롭게 들어서는 에디스모터스(주)를 방문해 신축 공장시장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과 동반 방문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친환경산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농협은행은 전북지역 ESG실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최초로 친환경·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SG 부문별 혁신현황을 자체 등급화 한 NH그린성장지수를 개발했으며, 친환경 여신상품인 'NH농식품그린성장론'과 NH친환경기업우대론'을 출시하는 등 ESG 경영실천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aT 김춘진 사장, 2021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 현장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11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국유리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천익출)과 정음의 생골농업협동조합(조합장 허수중) 등 밀 생산단지를 방문해 2021년산 국산밀 정부 수매비축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서 김 사장은 국산밀의 품위 검사와 등급 결정 그리고 비축과정 등을 살펴본 뒤, 생산단지 등 관계자들과 국산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8% 수준으로, 4대 곡물인 쌀, 콩, 밀, 옥수수 중에서 특히 밀의 식량자급률이 0.7%로 매우 낮다"며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밀 산업 기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1일 정음의 생골농업협동조합(조합장 허수중) 등 밀 생산단지를 방문해 2021년산 국산밀 정부 수매비축 현장을 점검했다.

을 구축해 2025년까지 자급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산밀을 수매하고 있으며, 올해는 1만 톤을 목표로 8월 중순까지 수매한다.

/김윤성 기자

7월 전북 고용률 전년 대비 1.5%p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전북 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4,000명(2.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000명(1.0%), 여자는 4만7,000명으로 1만 9천명(4.6%)이 각각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이 작년 동기보다 3만3,000명(2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000명(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만5,000명(7.5%)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업은 2만2,000명(-11.1%), 건설업은 9,000명(-10.9%) 제조업은 1만1,000명(-8.5%)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1.9%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2,000명(-7.3%) 줄었다.

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총 9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3,000명(2.4%)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3.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김윤성 기자

LH 전북본부, 완주삼봉 A2블록 단지대상가 4호 일반분양

LH 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는 11일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단지 내 상가 4호를 공급시행했다.

총 820가구의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 공급되는 상가로 전용면적 39.15㎡, 예정가격 1억6,600만원이다. 전체 6호(1층) 중 4호는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2호는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지에 대해 특별공급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단지 규모 대비 소량의 공급호수와 완주삼봉 웰링시티에 대한 발전가능성,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인 이용 등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약 91만5,000㎡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은 물론 초·중학교와 공급유치원 공원 및 소공원, 보건소, 파출소 도서관, 농협마트 등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된 마니 신도시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어 향후 더욱 더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L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전자입찰만 가능하며 신청자격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김윤성 기자

카메라 담긴 소비자 일상 생산농가에 '큰 힘' 돼요

전북농협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공모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가치 확산과 푸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동네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로아호'라는 주제로 도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영상 공모전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평소의 일상을 5분 이내 동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홈페이지(www.nhlocalfood.com)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10월 17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1월 초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로컬푸드 1번지 상) 1명 농촌사랑상품권 15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7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이다. 선정된 작품은 각 수확한 농산물의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이상 기후로 인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영농비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기획됐다"며 "출하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김정우 조달청장은 11일 군산시에 소재한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비철금속 방출량 확대·가격 할인 판매 지원

김정우 조달청장, 군산 소재 비축기지 현장 찾아 실태 점검

김정우 조달청장은 11일 군산시에 소재한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군산 비축기지 현장 점검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 보관 관리 및 방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현재 인천, 군산 부산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총 면적 27만6,836㎡)에 7월말 현재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총 20만 2,795톤을 비축하고 있다.

군산 비축기지는 약 9만3,795㎡, 창고 5개동 3만8,435㎡ 규모의 대형 비축기지로, 조달청 전체 비철금속 비축 물량의 39%인 7만9,014톤을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육을 위한 비철금속 방출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할인 판매 하는 등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비철금속 방출물량은 7월말 기준 6만5,41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이상 확대했으며 5만855톤을 할인 판매해 기업에게 총 57억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외산 이용 한도는 연 3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상 이자율을 연 1%대(소기업·소상공인 1%, 중기업 1.5%)로 인하하는 한편, 대외 방출 기간도 총 9개월까지 연장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했다.

김정우 청장은 "최근 지속되는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공급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비상사태 대비 정부 비축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비상사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 원자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올해 광복 76주년을 맞아 일반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과 일반식 이름 공적장부 정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산지역에 있는 일반인 명의재산 국유화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은행·전주시 자봉센터, 중·고교생 대상 경제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1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전북은행이 주관하는 이번 금융경제교육은 청소년 시기의 적합한 경제관념 이해 등을 통한 올바른 경제 습관 형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강좌를 신청한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난생처음 돈공부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저축, 소비, 투자, 부자들의 성공관 등 돈에 관한 다양한 이론 교육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투자게임으로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최강성 사회공헌부장은 "전북은행은 미래 꿈나무인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95)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